

# ‘불교와 삶’을 어떻게 회통시킬 것인가?

세계의 불확정성 혹은 혼돈 그리고 무상. 그 가운데서의 끝없는 선택. 그것이 인간의 삶이다. 원시 상태에서 그랬고 유전자 지도까지 환하게 그려낸 오늘날도 그렇다. 그래서 종교는 누천년을 존재해 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바른 삶을 엮어가는 원리로서의 불교. 인간이 택할 수 있는 수많은 선택지 가운데 하나다. 그리고 그것을 선택한 사람을 일러 ‘불자’라 한다. 2500년 전 부처님이 통찰한 ‘세계의 실상은 무엇인가?’에 대한 결과로

## 실상사 ‘화엄경 열린강’ 참관기

제시한 ‘바른 길’을 따르겠다는 사람들이다. 2500년 전 부처님의 문제의식을 오늘의 삶 속에서 체현하려는 불자들의 수행 공동체 실상사. 그곳에서 또 하나의 공부를 시작했다. 이른바 ‘화엄경 열린강’. 부처님의 가르침을 우리 삶과 어떻게 소통시킬 것인가에 대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한 토론 마당이다. 지난 4월 29일에 열린 첫 강의를 주요 내용을 지면에 옮긴다. 이 시대를 함께 살아가는 이들에게 하나의 거울이 될 수 있겠다는 믿음으로.



◊실상사의 사부대중 모두가 주체가 되는 ‘화엄경 열린강’. 부처님의 가르침과 삶을 일치시키는 구체적 방안을 모색하는 공부 모임으로 누구에게나 문이 열려 있다.

# “두번째 화살을 맞아선 안된다”

◊무엇이 보살의 마음씀인가(善用其心) 선용기심(善用其心). 소박한 일상의 언어로, ‘그 마음을 어떻게 쓰는 것이 착하게 사는 길인가’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현실은 녹록치 않다. 착하다 착한 사람들의 고통스런 일상이 세상의 낱줄이 되는 것이 엄연한 현실이다. 그래서 부처님의 ‘일대사(一大事)’는 아직 끝나지 않은 것이다. 부처님이 뒤아 놓은 길이 명백한 진리라 할지라도, 그 길을 걸어 가야 할 사람은 부처님이 아니고 우리 자신이기 때문이다. 바로 이러한 인식에서 논강은 출발한다. 그 출발의 의미를 도법 스님(실상사 주지, 열린강 진행자)은 이렇게 말한다.

나도 미워합니다. 악순환이죠. 제2의 화살을 맞은 것입니다. 진정한 수행은 제2의 화살을 맞지 않도록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림 없이 늘 ‘깨어있는’ 상태에서 ‘집중’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지혜와 선정입니다. ‘성서적적(權衡的)’입니다. 바로 그 방법을 가르친 것이 화엄경이고요. 앞으로 우리의 공부는 ‘지금 여기의 우리 삶’을 화엄경에 비추어 보는 일이 될 것입니다.”

다. 치열한 구도심 앞에서는 종교와 계층, 신분 따위는 하등의 문제가 될 게 없다는 태도다. 그렇다면 왜 화엄경인가. 열릴 보면 해당하기조차 한 이 경전이 지금 이곳에서의 우리 삶과 어떤 관련이 있던 말인가. “모든 불교 사상을 통일적으로 포용하고 있을 뿐 아니라 통과 서, 과거와 현재의 사상을 다 끌어안을 수 있는 경전이 화엄경입니다. 무한한 개방성으로 다양성을

겼을 때, 화엄경은 어떻게 가르쳤나를 묻자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화엄경은 어렵지 않느냐는 선입견 즉 난관 버트장머리부터 내려놓고 시작해야 합니다.” (도법 스님)

◊어떻게 공부하는가 참석자 모두가 주인공이 되는 토론 방식으로 진행했다. 모두가 ‘배우는 자’이면 서 가르치는 자.”

누구에게나 문은 열려 있지만 실상사 대중이 주축이다. 화엄학원과 화엄원, 인드라마생명공동체, 중학교 과정의 대안학교인 ‘작은학교’ 교사들, 귀농귀촌과 한생명공동체의 식구들이 바로 그들이다. 오로지 ‘불교적 삶’을 위해 기꺼이 어려운 길을 선택한 그들이지만, 그 선택이 ‘이렇게도 살 수 있다’가 아니라 ‘마땅히 이렇게 사는 것이 행복의 길’이라는 믿음을 확고히 하기 위한 공부다.

진행 방식은 먼저 예불을 한 다음 오늘의 언어로 옮긴 화엄경의 <정행품(淨行品)>을 봉독한 뒤, 화엄경의 주요 내용을 주제로 그것에 근거한 구체적 삶의 방식을 개인의 살림살이를 바탕으로 모색한다.

첫 모임은 오리엔테이션의 성격이어서 도법 스님의 설명이 주가 되었지만 앞으로는 활발한 토론으로 진행될 것이다. 시간은 매일 마지막 주 화요일 저녁 7시. (참여 문의: 063-636-3031) 윤재학 기자

## 화엄경은 ‘우리 삶의 소의 경전’

## 대립·질시, 공존·조화로 유도

### ◊왜 화엄경인가

다 아는 대로 화엄경은 방대한 경전이다. 스케일에 있어서도 우주적이다. 무수로 천상과 지상을 오간다. 수많은 보살이 등장하고 생사와 열반의 경지를 자유로이 넘나든다. 특히 입법계품에서는 선재동자가 53 선지식을 찾아 가르침을 구하는데, 그를 가운데는 비구, 비구니는 물론 바라문과 외도, 뱃사람, 술집 여자까지 등장한

인정합니다. 대립과 반목, 질시를 공존과 조화로 가꿀 수 있는 가르침을 담고 있는 것이지요. 불교의 세계관에 입각해서 살고자 하는 삶의 ‘소의경전’일 수 있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 무한과 영원을 다루며 우주적 사유를 하지만 내막은 현실을 다룹니다. 이런 경전을 철학적 또는 학문적으로만 다루면 공허해요. 그 가르침을 현실의 구체적 삶으로 해석하고 적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쉽게 말해서 대립이 생

## 배움의 문 누구에게나 활짝... 함께 배우고 가르치는 방식

## NGO 활동가가 쓰는 현장칼럼



홍현정 비로자나 청소년협 문화사업 팀장

## 가장 아름다운 존재

# 갖은 고난 딛고 목표 추진 청소년들 ‘마음껏 날개 펼 세상만들기’ 서원

### #아름다운 일화

1. 첫 만남 2002년 11월의 어느 날 사무실로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다. “저기요, 아리랑아트홀 이지요?” “네, 맞는데요. 어디시죠?” “네, 저는 KKM(고딩만의 공연모임)이라는 청소년 극단의 대표인데요. 아리랑아트홀 담당자님 계십니까?” “전데요. 무슨 일 이시죠?” “네, 아리랑아트홀에서 공연을 하고 싶어서요. 만나서 공연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청소년 극단 KKM의 대표는 고등학교 2학년생인 한민규라는 학생이었다. 민규는 사무실로 찾아와서 소극장 아리랑아트홀에서 자신들의 공연을 할 수 있게 후원을 해달라고 하였다. 공연 제목은 ‘한여름 밤의 꿈’. 미성년자라는 정식극단으로 승인 받지 못하는 현실에서 자신들이 조직한 청소년 극단의 서 가트치는 자.”

### 2. 우여곡절

청소년들이 하나의 공연을 처음부터 끝까지 준비한다는 것은 생각보다 만만치 않은 작업이었다. 공연을 준비하는데 여러 가지 난관도 부딪쳐야 했다.

### 제1차 난관 - 추위와의 싸움

아이들은 추운 겨울에 난방도 되지 않는 연습실에서 새벽까지 연습을 강행하였다.

### 제2차 난관 - 학교와의 마찰

민규와 몇몇 단원은 학교공부와 공연연습을 함께 병행하다가 결국은 기말고사를 포기하였고 그 결과 중간고사 점수의 70%를 인정받았다.

제3차 난관 - 부족한 세상에 대한 연극의상과 공연 포스터 등 각종 공연물품 제작과 준비에 아직 세상에 대한 부족함이 투박한 금박보다 훨씬 못한 성과물을 가질 수밖에 없었다. 제4차 난관 - 단원들과의 마찰 공연날짜가 다가올수록 드는 긴장감과 공연준비의 차질로 인해 모두들 힘들어했고 신경이 예민해져 서로간의 마찰이 생겼다.

3. 한여름 밤의 꿈 아이들의 눈물겨운 노력 끝에 2003년 1월 3일~5일까지 3일 동안 연극 ‘한여름 밤의 꿈’의 막이 올랐다. 아이들은 공연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 물론 자신들이 처음 생각했던 것처럼 아주 성공적인 첫 공연은 아니었지만 서로의 힘을 모아 연극을 제작하여 공연을 했다는 것에 높은 성취감을 느꼈다.

공연이후 KKM은 현재 두 가지 활동을 병행하고 있다. 하나는 ‘파멸의 날’이라는 두 번째 연극공연을 준비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청소년연극부연합 결성사업이다. 청소년연극부연합을 결성하여 연극배우를 희망하는 주변의 친구들이 자신들과 같은 어려움을 겪지 않고 함께 꿈을 키워갈 수 있도록 해 주고 싶단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람은 자신의 꿈과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나는 KKM의 경우뿐만 아니라 여러 청소년을 자주 접하면서 감히 청소년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존재임을 주장한다. 청소년이야말로 자신의 꿈과 이상을 위해 가장 순수하고 열정적으로 노력하는 존재임을 느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에게도 꿈이 생겼다. ‘청소년들이 마음껏 꿈꾸고 날개 펼 수 있는 세상 만들기’를.

불기 2547년 부처님 오신날 부처님 오신날을 맞이하여 금강염주를 구입하시면 5월 31일까지 장수호두 약돌 1set를 드립니다.

## 화제의 염주 소원성취척척 금강염주

2가지소원이 이루어진다는 신비와 영험의 염주



약위와잡귀들이보기도해도모르는염주 금강의 강력한 기가 발산되는 금강염주 금강염주는 수천 년이 지나도 소멸되지 않으며 불에 날어도 타거나 녹지 않고 24시간 생육광선과 금강의 강력한 기가 발산되며 정진 발원시 일 년무야 되는 세계유일의 염주입니다.

부처님께로 가까이... 염주는 부처님께로 가고자 하는 마음의 법구이므로 항상 귀중하게 생각하며 정중히 사용해야 복을 받고 소원이 성취됩니다.

선물에도 최고! 성불에도 최고!

부드러운지압용 장수호두약돌(소)

강한 지압용 장수호두약돌(대)

걱정고민 금강염주가 해결 금강염주는 수험생 자녀를 둔 가정, 사업이 풀리지 않는 분, 새로운 사업을 계획하고 계신 분, 승진을 기다리고 계신 분, 자녀가 없어 고민하고 계신 분, 연분을 찾고 계신 분, 법적인 문제로 고민하시는 분, 부령중인 분, 큰 고민거리들을 갖고 계신 분은 신비의 금강염주가 해결사 역할을 합니다.

금강염주 점안식 방법 금강염주를 받으신 사용 하실분이 꼭 개봉해야 하며 가정에서는 상위에 올려놓은 다음 27까지 소원만 기원하며 3배 하신후 어느 누구도 만지지 못하게 3일간은 높은 곳에 올려놓고 3일후부터 사용하러 됩니다. 첫째날은 집안에 있는 잡귀들을 물리치는 날이며 둘째날은 집안에 금강의 강한기를 넣어 가족을 건강하게 하고 마지막 셋째날은 동서남북의 복을 불러드리는 날입니다. 금강염주는 12간주와 108염주 1set이며 신용카드로도 분할구입되며 일요일 공휴일도 상담합니다. 농협 743-02-563237 정혜철 금액 195,000 \*기도정원하시는 스님께서는 청심상을 사용한 단주를 제작하여 드립니다.

금강염주사문의 (02)723-0909 전례로 주수 상명을 알려주시니 무사귀국 통기소로 전극이다나 법안신식을 하고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금剛念珠社 서울시 중구 르네상스 177 동명 B/D406호

## 신비의 은행석편지

스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북한에서 온 은행석입니다.저는 죽어가는 것도 살한다는 별명이 붙어 있습니다. 베게속에 은행석 25알만 넣고 주무시면 스님은 평생 뇌졸중, 중풍, 치매, 고혈압 등이 치료 예방됩니다. 그리고 기억력이 살아나고 혈압이 떨어지며 기미가 줄어들고 하얀 얼굴로 미백효과도 뛰어나요.

하루에 5시간만 주무셔도 8시간 잠잔 것과 같이 숙면을 해 머리가 맑고 상쾌해요. 또한 기침을 심하게 하는 분은 베게속에 은행석 25알을 넣고 2시간 정도면 기침이 멈춥니다. 제 고향 북한에서 소량만 생산되며 고위층 인사들만 사용하고 있으며 저를 잘 믿고 베게속에 넣고 주무시는데 한국 사람들은 의심이 많아요. 수험생, 수술을 받으신분, 발명품, 두통으로 고생하시는분,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직장인, 노약자, 몸이 허약하신 분들은 물론 누구든지 베게속에 넣고 사용하시면 평생 뇌에 관한 병은 없으시고 15년은 더 행복하고 건강하게 사세요. 가격은35,000원입니다.

문의전화 (02)722-1850 ◆농협: 1143-12-049474 송명화

## 건강정보 장수 호두약돌

생명의 기

황토생명과학 센터에서 황토와, 음이온, 원적외선, 기(기)를 이온 결합시킨 장수 호두약돌을 개발하여 인기를 끌고 있다. 호두는 오랜 옛날부터 어린 아이 할 것 없이 아주 절친한 손님이 지압용으로 현재까지 내려오고 있다. 손운동, 지압을 많이 하면 대뇌를 활성화 시켜 머리를 좋게 하고 치매를 예방하며 신진대사를 촉진시켜 활력 있는 생활을 영위하고 손 예술을 창조한다. 장수호두 약돌은 자연산 호두와 모양이 같으며 常溫(상온)에서 강력한 기를 발산하고 건강 증진과 활력 증가에 도움을 주는 음이온은 초당 2100까지 발산되며 원적외선은 0.93% 발산되며 해독성이 강한 활토가 다량 들어있는 신기한 호두석으로 손에서 놀이삼아 돌리면 손이 따뜻해지며 온몸에 생명의기를 체현할 수 있다.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분, 항상 피로감을 느끼는분, 수술을 받으신분, 연세가 많으신분 등은 후대가 간편하므로 항상 가지고 다니면서 손 운동을 하면 좋다.

가격(소) 33,000원 (대) 38,000

문의전화: (02)3210-3179

\*목걸이와 팔찌도 판매예정임